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

社說 醫療費問題 (一)

醫는 仁術이라。그렇나 이것을 運用하는 사람 即醫를 業으로 하는 사람이 不德하면 仁術이 않되고 만다。고마운 생각보다 걱정이 앞서게 되면 民衆의 認識이 醫의 親切性과 醫業에 對한 感謝性 神聖性을 忘却시키게 된다 醫業을 業으로 하는 者 蒼生의 責任을 生命을 맡는 만큼 民衆의 醫에 對한 信望은 絶對的이고 醫自體는 그 點에 價値와 生命이 있는 것이다。그렇한 醫가 最近 一種營業的으로 轉落하야 좀더 精神的 崇高한 醫業의 理念으로써 마른바 職責을 다한다고 보기 어려움게 된 것은 遺憾이라 않을 수 없다。

二

이같은 醫道의 道義的 脫落은 及其他 醫藥의 施術을 致富之術로 利用하는 傾向이 濃厚하게 되였다。醫業은 解放前 所謂 日政時代에도 그랬거니와 解放後에도 所謂 行政機關에서 人命을 取扱하고 市民의 保健厚生關係를 擔當한다 하야 特別한 保護와 恩典까지 베푸러서 여러가지 特殊한 恩澤을 주고 있다。그렇나 暴利의 醫藥業者는 이 恩澤을 疾苦에서 呻吟하는 患者나 保健厚生을 希求하는 民衆을 爲하야 公正圓滑하게 全幅的으로 活用치 않었다는 것이 事實일 것이다。今日 藥材가 潰하게 되고 物價가 昻騰하자 醫療費는 놀랍게 뛰어올나가 一般大衆은 좀체 醫藥과 接할 수 없게 되었다。

三

안즉이 軍政當局도 醫藥의 重大性을 느끼고 藥品과 其資材를 公私醫院에 配給制로써 廉價로 分配하야 妥當한 價格으로 市民의 治療에 當하도록 警告한 바 있었는데 其後 大部分의 醫藥者는 配給은 指定價格으로 받았고 患者로 붙어 받는 것은 넘청난 高價를 받어온 것이 事實이다。우리는 醫를 事業으로 하는 분들이 最高學府에서 修學한 世代的 知性人으로서의 良心이 있는 자랑을 안할 수 없이 그 분이 醫術을 致富之術과 바꾸나는 생각이 없을 것을 믿고자 한다。今後 當局의 査察과 指導도 있을 것이어니와 醫業者自體의 反省이 하루바삐 있어 治療費를 싸게 한 一大覺醒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民族自決의 決意를 媾和會議에 通告

◇……民主議院에서 打電

民主議院에서는 方今 巴里에서 開催中인 媾和會議에 對하야 다음과 같은 要旨의 電文을 치기로 決議하고 十日 午後零時三十分 公報部에서 發表하였다

列國은「카이로」宣言과「포스탐」宣言에서 約束된 朝鮮의 獨立을 速히 實現하기 바란다 朝鮮民族은 이 以上 遷延을 忍耐할 수 없음으로 民族自決原則에 依하야 民族獨立에 向하야 一路邁進할 판이다

15對6

媾和全體會議에서 英案을 採擇

第一難關우선落着

【巴里十日發AP合同】蘇聯代表「모로토푸」氏는 巴里媾和會議 議事節次委員會에서 採擇된 英修正案에 反對하였는데 佛大統領「비도」氏는 九日 全體會議를 召集하고 議事節次委員會에서 決定된 票決問題를 다시 全體會議에 上程票決하자고 要求하였다 이리하야 九日에 열린 全體會議에서 蘇聯側은 自國側을 支持하는 票數를 獲得하고저 奔走努力하였으나 節次委員會의 票決과 同一하게 結局 十五對六으로 다시금 全體會議의 承認을 獲得한 것이다 即 蘇聯「우크라이나」白露、波蘭「체코슬로바키아」「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各國은 英修正案採決에 贊意를 表示하였음으로 今後 巴里媾和會議討議에 있어서는 三分之二可決制와 過半數可決制를 兼用하기로 確定되었는데 大體로 보아서는 前者에 重要한 것이라 한다 이 席上에서 美國務長官「번즈」氏는 昨日의 蘇聯代表「모로토프」氏의 攻擊을 反駁하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英修正案採決은 美英「블럭」으로 因하야 影響을 받었다고 하는 蘇聯攻擊은 前後를 顚倒한 感情에 넘친 言辭이다 美側은 平和를 愛好하는 모든 國家와 親善關係를 保持하도록 努力하며 同時에 이 國家를 要望하는 國家들과 協力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國家를 假想敵對抗하기 爲해서「블럭」을 作成하려는 것은 않이다 本來 우리는 原子에 讓步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恒常讓步만을 할 수는 없다 聯合國은 自由로운 世界를 爲하고 戰爭한 것이며 聯合國의 一部가 全世界를 命令하기 爲하야 戰爭한 것은 않이다

八·一五와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今後의 進路

③ 金炯元

解放一年! 三千萬배달民族이 日本帝國主義의 鐵鎖에서 解放된지가 어느듯 一年이라는 歲月이 흘러갔다。고요히 昨年 八月十五日을 回想하여 볼 때 다시금 熱淚가 솟아나고 가슴이 터지는 듯하다。그러나 지금 우리는 感情에 사로잡히기에는 너무나 現實의 冷嚴함을 께달어야 할 事態에 直面하고 있다。半世紀에 걸친 鐵鎖는 풀니였으나 三十八度의 線은 우리 民族을 空間的으로 兩斷하여 놓았고 獨立의 約束은 되였으나 左右의 對立은 우리 民族을 政治的으로 兩分시키고 말었다。一年을 두고 기다려도 獨立의 갓봄날은 오지 않고 經濟의 混亂은 朝夕으로 이 民族의 生活을 威脅하고 있다。이 悲慘한 現實속에서 이제 우리는 解放一年을 맞게 된 것이다。그러면 무엇으로써 八●一五를 記念하려 하는가、또한 무엇으로써 祝賀하려 하는가、우리는 이날을 記念하느니보다 反省하여야 할 것이오 祝賀하기 前에 自責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過去一年동안에 무엇을 하였는가 世界史上에 일즉이 그 類例를 보기가 드물은「解放」을 當하고난 우리는 그야말로 經驗도 없고 準備도 없이 當場에 乙酉八月十五日 그날로 곳 獨立이 成就되는 것으로만 생각했고 大統領을 내이고 政府를 組織하기에 밧버서 아모 人事禮節을 몰아볼 겨를조차 없이 지내였다 呂運亨 安在鴻等諸公의「建準」이 出發當時의 理念그대로「政府의 母體로」않이오「政府를 組織하라는 意思도 없이」오즉 國內各層을 網羅하야 그 會名과 같이 沈着한 態度로 建國準備를 進行하였던들 우리의 渴望하는 獨立이 하마 이미 成就되였을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였나

「建準」以來 政界各派의 業績

「建準」內部의 偏見에다가 故宋鎭禹、金性洙等諸公(後日韓民黨을 結成함)의 固執으로 말미암아 所謂擴大强化의 工作에 失敗(或 自取일지도 모른다)한 建準은 頹勢를 挽回할 能力이 없는지 本色을 發揮하다함이였든지 그야말로 寡婦의 解産과 같이 國人이 모르는 사이에「人民共和國」을 誕生시키고 말았으니 人民이 모르는 人民共和國이 있다는 말도 처음 듯거니와 이 所謂「人共」을 領導하는 諸公의 眼中에는 벌서 三千萬大衆이 없이 보히였고 領導權이라할지「헤게모니-」라할지 大統領이나 總理의 자리만이 뵈였다 보든지 自稱左派요「進步的」民主主義를 부르짓는「人共」에서는 自己理論에 矛盾撞着을 發見하게 되였고 새로운 血路를 차저야 하게 되였으니 人民黨과 共産黨이 先後하야 黨勢擴張과 下部組織 一部人民獲得에 狂奔하게 된 것도 免치 못할 運命의 하나이었든가 한다。長安거리에 날로 늘어가는 六七十의 政黨及類似團體의 看板을 본체만체하고 解放後 一朔이 게난 九月中旬에야 비로소 結黨의 產聲을 내인 韓國民主黨은 그 出發의 거름거리부터가 鄭重沈着하였다 고할지 保守遲鈍하였다고 할지 該黨의 行動을 示唆하는 듯도 하였다。「重慶臨時政府絶對支持」를 最大한 看板으로 내어세운 同黨이「臨政」이 個人資格으로 還國함에 際하야 自稱國內第一黨의 威力을 發揮하야써 美軍政當局에 臨政支持의 運動을 展開한 일이 있었든가。臨政보다 앞서 還國한 李博士를 擁護하야 李博士의 聰明을 어둡게 한 사람도 韓民黨의 一部人士이오 遣政協力의 名目下에 軍政要職을 占領하게에 汲汲한 이도 韓民黨의 一部人士이였다。

李博士를 臨政系要人으로 보고 않봄은 自由意思에 맛기거니와「臨政을 支持」한다는 韓民黨으로서 비록 一部黨員이 脫黨하고 돌어간 것이라고 합쳐 이나 臨政을 正式認定치 않는 軍政과 合作함은 主張과 行動의 背馳가 않이였든가。

毛澤東이 않인 新民主主義와 法統問題等가지고「建準」에서 憤然히 離脫한 安在鴻等諸公이 國民黨을 組織한 것은 法統問題의 經緯로 보아 차라리 臨政이 還國할 때까지 自重할 만 같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나 今日에 이미 國民黨이 韓國獨立黨에 合流된 事實로 보아 길게 말할 餘地도 없는 일이다。二十여個 小政派를 吸合하야 新韓民族黨을 組織한 權泰錫、金麗植等 諸公의 努力은 分裂만 일삼는 當時政界에 一大收穫이라 할 수 있었으나 螢光은 百千이 모힌다 할지라도 螢光에 不過할 따름이 根據가 薄弱한 小派를 묵귀는 하였으나 領導諸公의 努力이 반드시 全的으로 反影되지 못하였든 것도 不得已한 事實이였다 於是乎 右派合同의 潮流를 타고 國民黨과 함께 韓國獨立黨에 歸依하게 되였으나 韓民黨이 효음으로 合同에서 떠러진 것은 別問題로 하고 이로써 右派의 合同은 一段落을 告한 것이다。(續)

期限은 三十年 利子는 二分半

美國朝鮮 크레디트

【華盛頓十日發UP朝通】美國政府官吏의 言明에 依하면 이「크레디트」는「맥아-더」元帥가 日本과 朝鮮을 復興시키고 그들의 經濟를 平和時의 基本으로 恢復시키기 爲하야 美國의 剩餘器材를 非常한 境遇에는 利用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 本國政府에 對하야 要求한 것이라 한다 ◇「맥아-더」元帥의 要求는 美國對日本諮問委員會의 同意를 받았으며 東京과 서울에 있는 當局者들은 美國務省對外淸算委員會代表와의 사이에 이 借款에 關한 細目措置를 作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크레디트」는 美國輸出入銀行에서 供與될 것이다「크레디트」의 額數에 關하야서는 何等의 決定이 없으나 一部의 觀測에 依하면 日本에 對한 借款은 一千六百萬弗 밖에 않될지도 모른다 한다 日本에 對한 借款額數는 日本으로 하여금 그의 全所要品을 購入케 하느냐 또는 極히 局限된 것이냐는 當局이 會議에 到達한 後 決定되리라 한다 그리고 朝鮮과 日本은 이「크레디트」를 그들이 輸出에서 獲得한 美弗貨로 返濟하게 될 것이다 非公式이고 確認되지 않은 情報에 依하면 이「크레디트」의 返濟期限은 三十年이 될 것이며 利子는 年二分五厘이라 한다 이미 美國陸軍省과 國務省은 이「크레디트」供與計劃을 承認하였으며 財務省도 當初의 反對를 撤回하였다 한다

責任은 現在는 軍政

● 아직 交附된 財產은 없다

【華盛頓十日發유-피U P特派員發朝通】剩餘財産處分에 關係있는 當局者의 言明에 依하면 價格 數百萬弗에 達하는 美國의 陸海軍剩餘財産은 朝鮮과 日本에 讓渡할 수 있는 措置가 成立되었다 한다 그러나 아직은 何等의 財産도 交附되지 않었다고 한다 이 措置에 依하면 朝鮮美國軍政廳은 期限 三十年, 利子二●八分之三分의「크레디트」二千五百萬弗을 받을 것이며 軍政을 承繼하는 朝鮮人政府도 이 借款에 對한 債務를 引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引渡된 財産은 南朝鮮에서만 使用하게 될 것이다 日本에 對한 計劃은 全然 다른 것이며「맥아-더」元帥에게 그가 疾病과 不安狀態를 防止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데로 日本內에서 剩餘財産으로 認定된 器材를 使用할 權限을 附與하는 것이다 그리고 如此한 器材에 對한 價格은 日本의 輸出品에서 나는 收入에서 控除될 것이다。

웨벨總督·國議派에 對해 聯立政府樹立要請

【뉴-데리十日UP發朝通】信憑할 만한 消息通이 傳하는 바에 依하면「웨-벨」印度總督은 全國民會議派에 對하야 聯立中央政府를 組織하여 달라는 要請을 하였다 한다 今般의 聯立政府는 前에 提案한 暫定政府代身 樹立될 것으로 觀測된다 또한「웨-벨」總督은 政府의 構成에 關한 決定은 國民會議派에 一任하였다 한다

英兵員除隊

【런던九日發共立】今年 十月부터 十二月까지의 期間에 除隊되는 英軍男女의 兵員은 約三十一萬二千名이라고 八日 政府로부터 發表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昨年六月以來의 除隊人員을 合하여 가지이 四百三十萬에 達하게 되며 따라서 英軍의 現兵力은 約百二十萬으로 減少되게 된다

中國中西部地區

國共間停戰成立

各其十哩를 後退키로

【北平十日發AP合同】當地停戰執行委員會本部發表에 依하면 中國西部戰線은 八月廿六日까지 停戰하기로 決定되었다 한다 이로 因하야 山西省 河南省 湖北省에 있는 國共兩軍은 即時十哩式 後退하도록 命令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 停戰은 部分的이고 滿洲와 現在大規模의 衝突이 展開中인 江蘇省은 이에 包含되지 않었다 한다 마는 이번 停戰이 成立되었다 하더래도 中國狀態는 아직까지도 緩和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交涉再開?

停頓中의 國共關係

【南京十日發AP合同】美特使「마-샬」氏는 牯嶺으로부터 南京에 歸還하였는데 이에 따라 最近停頓狀態에 있든 國共兩側의 和平交涉은 再開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牯嶺에서「마-샬」特使는 蔣主席及駐中美大使「스튜어트」博士와 會談하였는데 現在衝突을 繼續中인 國共兩軍에 關한 新情

英軍埃及撤退

【카이로十日發AP合同】埃及「와-프드」에는 六十四年동안이나 英軍에게 占領되였든 城砦에 九日 埃及國旗를 飜揚하였다 이 城砦에 駐屯하고 있든 英軍은 去月 撤退에 決定 英國旗揭揚式에서 埃及首相「이스마일·시드키」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英軍의 最初占領地帶는 이 城砦이었다 따라서 英軍이 最初로 이 城砦에서 撤退한 것은 當然한 일이다

美英 軍事基地 討議中止

【華盛頓九日發UP朝通】信憑할 만한 消息通에 依하면 美國參謀本部는 軍事基地問題에 關한 美英間의 討議再開를 當分間 中止하기로 決定하였다는데 이것은 戰後急速한 軍隊의 減員과 最近「트루만」大統領이 發布한 豫算에 關한 指令으로 因하여 新基地建設이 不可能하게 된 까닭이라 한다

獨占領地서 蘇聯側不許

新聞交換도 言論自由도

【伯林十日發AP合同】獨逸美軍政當局言明에 依하면 占領地區間에 新聞紙自由交換에 對한 四個國의 協議는 거의 失敗的이라 하는데 이것은 蘇聯側의 反對에 因한 것이라 한다 또 蘇聯側은 獨逸에 言論自由를 授與하는데도 亦是 反對하고 있다 한다

人事消息

△李範昇氏(前서울市長) 今般 서울市本町五丁目 五五番地에서 辯護士開業人事次來社

◇…美國에서 朝鮮에 二千五百萬弗의「크레디트」供與說。그 目的은 經濟復興에 있고 返濟方法은 輸出에서 獲得한 美弗貨로 한다고。三十年期限、年二分三厘八毛의 利子。

◇…아직 獨立않된 朝鮮에 對한「크레디트」는 國際資本의 半植民地化政策이란 誤解를 받기 十常八九이나 聯合國의 一員인 美國의 援助協力其他工作으로도 볼 수 있는 일。

◇…個人이나 國家이거나를 莫論하고 누가 빚지기를 좋아할가 보냐마는 食糧을 爲始하여 緊急物資는 자꾸 아하지 消費는 없는 노릇이니 머며 놓고 反對하는 態度는 비록 遂聞에서 나온 것이라도 白畫이 若干。

"希望園"更生을象徵

養鷄로、養豚으로、園藝로

誕生된百萬圓의廢娼救濟聯盟

폐창구제연맹(廢娼救濟聯盟)결성식은 十일 정오부터 조선부녀총동맹 부인부 애국부인회 부녀공맹 부녀종교각단체 등 十여단체 대표 약五〇명이 참석한가운데 서울대화정(大和町) 해동여정원(崇東陽院)에서 노농당(勞農黨)부인부장 김말봉(金末峰)씨 사회로 개회되었다 김씨의 「문화민족으로서 수치스러운 제도인 공사창을 존속시킬수없다」는 취지설명이 있은 다음 외교부장 유엽(柳葉) 동조직부장 차고동(車高東)씨의 축사가 있었고 이어 임시집행의 장으로 김말봉씨를 선거하고 폐기수용소(廢妓收容所) 설립에 관하야 토의하였는데 전국 백만원 예산으로 약二백명을 수용할수있는 희망원(希望園)을 창설하야 양돈、상원(桑園)、양계、과수원、양봉등의 사업으로 이들을 운용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하오 二시께 폐회하였다。(사진은 폐창구제연맹결성식장)

民戰議長團 不拘束送局

李娟榮氏告訴事件

앞서 대한부녀동맹국 민의위원장 이서영(李始榮)씨의 명예훼손에 관한 고소로 그동안 종로서에서 취조중이던 민전의장단 장건상(張建相) 백남운(白南雲) 이여성(李如星) 김원봉(金元鳳) 유영준(劉英俊) 五씨는 근근 불구속으로 송국되리라고 한다

軍政官과警察官을 脅迫·謀殺하면嚴罰

하—지中將、聲明發表

군정관리나 경찰관을 협박하고 살해할려는자는 체포되는대로 군법회의에 돌려 처벌할것이라고 「하—지」중장은 十일 다음과같이 성명하였다 군정관리 특히 경찰부요직에 있는 관리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편지가 종종 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범인은 체포되면 군법회의에서 재판하여 상당한 처벌을 받게될것이다。

廣木最高價違反 懲役六月을言渡

중앙물가행정처에서 적발하여 송국시킨 가격규칙위반자가 서울재판소에서 징역六월의 언도를 받았다고 한다。즉 서울영등포당산정二二五에 사는 박봉석(朴奉石)은 중앙물가규측 제一二三호의 위반으로 六월의 재정을 받았는데 이자는 광목을 중앙물가행정처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야 팔았다고 한다 중앙물가구측제一호는 十一종목의 물품에 대하야 규정한것이며 七월十五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야 현재 남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朝鮮人民黨 三週年記念式

조선인민당(朝鮮人民黨)에서는 창립제三주년기념일인 八월十일을 맞이하야 이날 상오 十시부터 종로청년회관에서 三백여당원 참여하에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식은 이만규씨 사회로 시작되어 여운형(呂運亨)당수불참으로 부당수 장건상(張建相)씨로부터 「인민당은 계급이나 영당이 중심으로한 당이 않인 수중심의 대중을 위하야 싸워야할것이다」라는 당지(黨旨)를 설명과 이석구(李錫玖)씨 三당사령목이있는뒤 조선공산당을 대표하야 홍남표(洪南杓)씨의 축사와 유영준(劉英俊)씨 축사 대표축사가 있은후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였다(사진은 기념식장)

美國郵便船消息을 滿載 仁川에

미국으로부터 제一차 교환우편물을 실은 「메이포·모티온」호가 十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것이 처음이라고 하며 「월리암스·비트리」호는 조선으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제二차우편물을 싣고 八월十三일 인천항을 떠날 예정인데 제一차우편물을 실은 「게이포·화이아·와차」호는 최근 미국을 출발하였다 한다

國際親善에도음

解放一주년記念 하—지中將의 朝美親善 激勵競技

서울운동장에서 八월十六일 해방一주년기념 운동경기대회에서는 지난七월에 열린 경기에서 조선군이 八十三대 五十三으로 우승한 육상경기의 설욕전이 있고 조선군과 미군의 야구 미군 호각의 야구등 호화로운 경기가 있는데 「하—지」중장은 이 조미경기대회는 국제친선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나간 一년동안 조선인 운동경기에 관심을갖고 보았다 조선인 운동경기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인 운동가들은 운동에 대한 큰 열성과 능력과 운동정신을 발휘하였으므로 국제친선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八월十六일에 열리는 조선군 대 미군경기에대하야 나는 그들이 잘싸우기를 부탁하며 또 우수한 「팀」이 승리할줄로 믿는다

家庭主婦들에 虎疫豫防講演

서울시내 가정주부에게 호열자의 예방사상을 넣어주기위하야 국민보건후생협회(國民保健厚生協會)에서는 호역예방강연회를 다음과같이 열기로되었는데 이 강연회에는 미스터윤 「호열자」예방만담도 있을터이다

△十二日午後三時=城東、北部隣保館
△十三日午後二時=西部、龍江隣保館

郵便料金引上

書狀·五十錢 葉書·卄五錢

체신부에서는 八월十二일부터 실시하기로된 전신전화요금의 개정과함께 우편요금도 인상하였다

▲國內通常郵便料
第一種有封書狀 五十錢
第二種通常葉書 卄五錢
往復葉書 五十錢
封緘葉書 五十錢
第三種一般書類 二十五錢
日刊新聞 十五錢
第四種印刷物書籍等 五十錢
盲人用點字 十五錢
第五種農産物子種 十五錢

▲國內小包郵便料
二瓩까지 五圓
四瓩까지 七圓五十錢

▲特殊料金
書類料 一圓五十錢
配達證明料 一圓
物品價格表記 五十錢
訴訟書類等取扱料 二圓

▲郵便爲替料金
通常爲替 百圓까지 二圓五十錢
千圓까지 十圓
電信爲替料 百圓까지 六圓
千圓까지 卄四圓
小爲替 百圓까지 一圓五十錢
三百圓까지 四圓五十錢

演藝旅行列·講演

援護事業協會行事

해방기념 첫돌을 맞은 조선원호사업협회(朝鮮援護事業協會)에서는 十三、十四 양일 ... 이틀동안 빠고다공원 전재동포들의 가정 ... 과 강연이 있을터이라 하며 ... 를 연다한다

다시控訴院에抗訴提出

却下當한裁判長忌避事件

정판사(精版社)위조지폐사건에 대하야 변호인단측으로부터 양(梁)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야 각하의 결정이 있었다함은 기보하였거니와 이결정에 불복한 변호인단측은 다시 경성공소원장에게 법정기간의 종일인 十일하오 항소(抗訴)를 제출하였다 한다

懸賞納稅標語 포스터—募集

경기도재무부에서는 납세의 관심을 환기시키기위하야 납세표어와 「포스터—」의 도안을 현상모집중인데 마감기일은 八월十五일까지이고 상금은 표어一등한사람 五백원 二등한사람 三백원 三등二백원 五十원 포스터—一등한사람 二천원 二등한사람 천원 三등한사람 천원

(③) 해방일년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해방직후 저들 왜적이 불법으로 발행하야 뿌려노코간 수십몇억이라는 지폐와 이때까지 감두어두었던 통제물자와 군수품등 막대한 물자를 이역시 불법으로 팔어먹고간 한동안은 물자도 혼하고 돈도 혼하야 해방의 감격과 흥분가운데 일반대중은 대저 무엇이 어떻게 되리라는 전모를 생각할여유가 없었다。그러나 그도 잠간이었다。여름이 가고 가을이 저물어갈때쯤부터는 물가는 더없이 뛰어오르기만하고 생산되는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우리 손으로 생산되는 곡식값도 자연 뛰어오르지 않을수없다。이러고보니 닥쳐오는것은 생활난이 않일수 없었다。◇

돌아보건대 저들의 압제밑에 있는 그동안 어느 생산공장하나가 왜놈들의 손아귀에 집히지 않었던것이 없었음은 물론 또 모든공장이 전쟁말기에는 물어가면서 모두 군수품공장이 되었든 결과가 이땅에 해방의 날이 오든 그날부터 모든 생산공장은 그수뇌부의 왜적들이 넘어가면서 공장은 완전히 정지상태에 빠지고말고 공장직공과 기타 모든직장의 로동자들은 어느하나가 실업자가 안된것이없었다 그뿐더러 공장은 날이가면서 시설까지 파괴되는것이 적지않었고 또 미국군정의 조처도 시일이 걸렸지만 그보다도 인심은 흥분된채 진정할줄을 모르고 있었으니 전후사태를 생각해보아 면키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치 않을수 없었으나 이러한 혼란이 지금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있고 앞으로도 이어 목은 상당한시일을 요하게 속하리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불행하고 통분한일이 않일수 없다。더구나 남에서 북에서 차저든 전재동포의 수효는 나날이 늘어가며 전반적으로 생활난은 날로 심각해가고있으니 이 사회는 빈곤과 질서혼란이라는 구렁에 빠질것밖에 길이없을것도 사실이다

僞幣氾濫에高物價亂舞

同胞여—犧牲과奉公心을살리라

◇

해방으로부터 독립국가건설의 길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일대혁명적인 새건설이 있어야 할것은 국가적 설계에 속할것이라고 하겠거니와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저마다 생각하여야할것은 이사회의 자치적인 질서의 복구와 동시에 생산건설에 주력하여야할것이 첫째의일이었다 전쟁중오랫동안을두고 물자가 극도로 궁핍하였든것을 생각하면 일시통제물자군창고의 물자가 쏘다저나왔다고 해도 결국은 새발의 피가튼것박게 될수없다 지도층의 모든학자며 기술가며 기업가 그리고 로동자직공들은 새로운 체재와 새로운 각오밑에 생산진선에 전력하여야 할것은 그때도 되므로 했오나 가는물자가 극도로 곤궁한 오늘에 있어서 더욱긴급한것이다 결국생산이없이 사회질서의 건전한 로대는 안선다 적당한 값에 팔월 소학생공책한권에 오륙원 내지십원 손바닥만한신문장의 실비가 팔원구십전 연필 한자루가 사오원에서 팔구원 잡지한권이 삼십원에서 오십원 이와같은 물가고는 더업이 발행된 지폐가 범람하고있다는 땃도있으나 오늘 위협재로는 물자가없다는데 연유가 더크다고볼것인데 그는 하여간 이같은 물가고로 생산은 또어떻게해날것인가 창차자작자급이 충분할수있는 식량문제에있어서 더심각하여 소두한말의 쌀값이 오백원대를 바라보고있으니 앞으로 이 곤경을 어떻게 타개해나갈것인가。◇

무서운것은 빈곤이다 하로 이틀의 주림도 참기어렵거던 전민중의 대부분이 해를두고 굶주림에 빠져게된다는 것은 그민족의 장래에 모 영향하는바 막대한것이다 굶주리는 날이 계속하매 인심은 퇴폐하고 사회도덕은 중심을잃고 모든건설에 정열은커냥 무관심한상태에 빠지기쉽다 건설에는 전체를위하여 개인의 이해를제처놋는 희생심과 봉사적인 연대의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지도만으로는 될수없다 영양은 정신적인것과 동시에 물질면에 있어서도 적당히 보급되여야한다 하다 빈곤이 이대로 계속하야 또다시 한해를 넘는다면 빈궁은 마침내 정신상 물질상 민족적으로 만성화할우려가 없지않다 비록 호화로운 미국의 물자가 온다하자 그러나 그것을 받어드려 소화할수없는 빈궁상태를 계속한다면 외양은 물라도 결국 빗의노예가 될것바게 없고 일시적인 호화로운것에 마비되여 곤궁을 타개하고 자력으로 자립하여야한다는 정신조차 잃어버리게될 염려조차 없지않을것이다。◇

당면한것은 이에 틈모다 갔고 가을이 다처온다는것이다 생각해보자 오늘의 생활고 이 물가와 이 물자난이 쉬히 해결될것가튼가 수많은 실업자에게 전재동포만이 문제되는것이 않이다 너모나 할것없이 해방를제해의 이겨울은 어떻게 지날것인가 염통절한! 자연의 법측에는 자정이 없다。(계속)

今日氣象

東西風이불고晴天이나때때로흐리고多少더울것다 氣溫—攝氏三二度一分

曆

十一日(日曜) 陰十五日 干支 丁巳
△日出 午前五時四五分
△日入 午後七時三二分
△月出 午後六時四九分
△月入 午前三時三〇分
△滿潮 午前四時二八分 午後四時三七分
△干潮 午前十時四三分 午後十時四八分

放送

十一日(日) —放送順序—
【朝】午前六、〇〇 保健體操解說【後】五、〇〇時報·ニュース △五、三〇어린이시간 △六、〇〇基督教時間「우리의解放과自由」卞鴻圭 △七、三〇天主教時間「聖母마리아」 △八、〇〇連續史談「烈婦篇」(際厚와白雲) 尹汝成 △八、三〇學生時間 京城女子師範學校 合唱

美軍政法令 (第一號부터 卄號까지) 發賣

京城府中區南大門通二丁目十五
朝鮮行政出版社
電話本局(2)五六〇·一五三二番
振替口座京城三六一番

都賣歡迎
東和百貨店(舊三越) 食糧品課
서울市本町一丁目

씨름懸賞一萬圓
씨름申込場所(東亞日報社內)
主催 西北學生援護會
後援 東亞日報社

國樂과씨름全國大會
8月12·13·14 三日間(雨天順延) 於 德壽宮
各道名唱、新民謠、漫談漫才
僧舞、鳳山탈춤、줄타기、其他